



레안드로 31점... 역시 '괴물'

삼성화재, 라이벌 현대캐피탈 3-0 완파



대한항공도 LIG 3-2 꺾어

삼성화재가 라이벌 현대캐피탈을 누르고 올시즌 상대전적 3전전승을 기록했다.

삼성화재는 28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2006-07 힐스테이트 V리그 남자부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 레안드로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3-0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삼성화재는 올시즌 현대캐피탈전 전승을 포함, 13승1패로 남자부 단독 선두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1세트부터 치열한 접전이 이어졌다. 한쪽이 앞서가면 어느 한쪽이 따라붙는 승부가 계속됐다. 삼성화재는 18-18 동점에서 손재홍의 C속공과 신선호의 블로킹 등으로 21-18까지 앞서나갔지만 후인정을 앞세운 현대캐피탈의 추격에 밀려 21-21 동점을 허용했다.

삼성화재는 레안드로의 오픈공격과 상대 범실로 24-21로 앞서 1세트를 마감하는 듯

보였지만 끈질긴 현대캐피탈에게 다시 24-24로 따라잡히고 말았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노장 신진식이 잇따라 오픈공격으로 2포인트를 따냄으로써 극적으로 1세트 승리를 거머쥐었다.

2세트 들어 양팀은 점수를 주고받는 치열한 접전속에서 승부는 다시 듀스로 접어들었다. 현대캐피탈은 29-29에서 상대의 범실로 처음 리드를 잡았지만 경기를 마무리하지는 못했다.

승부는 33-33에서 겨우 같았다. 현대캐피탈로선 후인정의 스파이크서비스가 네트에 걸린 것이 치명적이었다. 상대로부터 점수를 헌납받은 삼성화재는 손 투니의 C속공을 잘 받아낸 뒤 레안드로의 강력한 백어택으로 경기를 마무리지어 2세트마저 품에 안았다.

1.2세트를 듀스 접전 끝에 승리로 이끈 삼성화재는 그 여세를 몰아 3세트도 매섭게 밀

어붙여 3-0 승리를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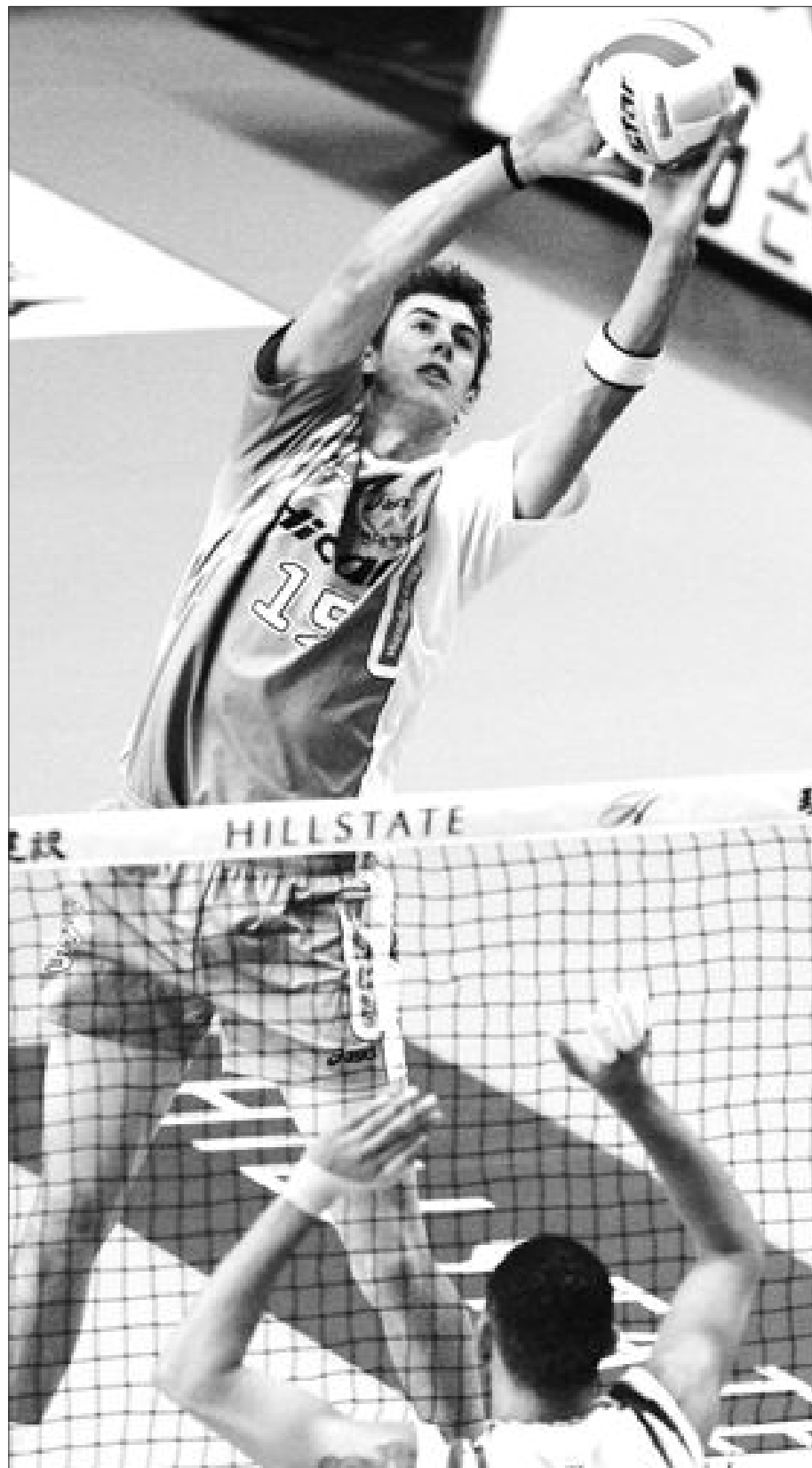
레안드로는 이날 범실 12개를 범하기는 했지만 후위공격 11개를 포함, 팀공격의 절반 이상 책임지면서 31득점을 올려 이날 승리의 주역이 됐다.

한편, 인천도원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대한항공이 2시간17분간의 접전 끝에 LIG를 3-2로 꺾고 3위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대한항공은 1.2세트를 먼저 LIG에 내줘 패색이 짙었지만 3, 4세트를 연속으로 따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듀스 접전 끝에 5세트를 20-18로 잡아내 극적인 대역전극을 연출했다.

남자부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한항공의 외국인선수 보비는 이날 무려 48득점을 기록, 대역전극의 주인공이 됐다. 대한항공은 LIG(9개)의 3배가 넘는 28개의 범실을 저질렀지만 보비의 고군분투 활약으로 값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농구가 아닌데...

28일 오후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힐스테이트 2006-2007 V-리그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경기에서 현대캐피탈의 유승민이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준수승

슬로베니아오픈 남자 탁구

한국탁구의 '간판' 유승민(삼성생명)이 2007년 슬로베니아오픈에서 '속적' 왕하오(중국)의 벽에 또 한번 막혀 우승컵을 놓쳤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승민(세계랭킹 8위)은 28일(한국시간) 새벽 슬로베니아의 류블라나에서 열린 대회 남자단식 결승에서 세계 3위 왕하오에게 0-4(9-11 7-11 5-11 7-11)로 완패해 아쉬운 준우승에 그쳤다.

이로써 유승민은 왕하오와 역대 국제대회 상대전적에서 2승12패의 절대적 열세를 면하지 못한 반면 지난 해 챔피언 왕하오는 대회 2연패를 이뤘다.

유승민은 지난 1999년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왕하오를 처음 꺾은 뒤 아테네올림픽 결승에서도 4-2로 이겨 금메달을 땀지만 이후 2년 넘게 왕하오를 이겨보지 못했다.

8강에서 세계랭킹 1위인 왕리진(중국)을 4-0으로 완파하는 이번을 연출하고 4강 상대 류추안(홍콩)마저 4-2로 물리치고 결승에 오른 유승민은 오른쪽 무릎 부상으로 불편한 왕하오를 맞아 승리가 기대됐지만 이면타법의 빠른 공격을 구사하는 왕하오를 넘지 못했다.

세레나, 사라포바 꺾고 우승

호주오픈테니스 여자단식

지난 27일 올해 첫 메이저대회인 호주오픈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요정' 마리아 샤라포바(세계랭킹 2위·러시아)를 2-0(6-1 6-2)으로 완파하고 2년 만에 이 대회 우승 트로피를 탈취한 '흑진주' 세레나 윌리엄스(81위·미국)가 많은 화제를 뿌리며 세계 정상권에 복귀했다.

세레나는 1968년 프로선수의 메이저대회 참가 허용된 이후 호주오픈에서 1978년 크리스 오닐에 이어 29년 만에 시드 배정을 받지 못한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두 번째 주인공으로 남았다. 호주오픈은 남녀 세계랭킹에 따라 각각 32명까지 시드를 배정했다.

그는 또 역대 메이저대회를 통틀어 여자단식을 제패한 선수 가운데 세 번째로 순위가 낮은 선수라는 기록도 세웠다.

지난 2003년, 2005년에 이어 통산 3번째 호주오픈 타이틀을 거머쥔 세레나는 오픈 시대 이후 이 대회 최다 우승 랭킹 2위로 뛰어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29일(월)
 - ▲PGA 투어 뷰익 인비테이셔널 FR(05 : 00-SBS스포츠)
 -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삼성생명-신한은행)(16 : 50-SBS스포츠)
 - ▲제2회 제주 평화기 전국 태권도 대회 고등부 결승(14 : 50-Xports)

■ 새 대리인 맞은 박찬호 어느 팀으로?

보리스 "NL 서부지구 3~4구단과 접촉"

미국 프로야구에서 정상급 에이전트로 손꼽히는 제프 보리스를 새로운 대리인으로 선임한 박찬호(34)가 과연 어느 팀에 새 등지를 틀지 관심이 쏠린다.

보리스는 27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의 '베벌리힐스 스포츠카운슬(BHSC)'에서 한국 언론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계약과 관련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건강을 회복한 박찬호는 올해 35경기에 충분히 선발 등판할 수 있다. 아직도 2-3선발로 활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자신감에서 메이저리그와 마이네리그에 내려가면 연봉이 달라지는 스플릿 계약을 하지 않고 다년보다는 1년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보리스는 박찬호가 원하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5팀을 포함해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과 모두 접촉하겠다고 밝혔는데 가능성이 높은 구단은 3-4구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팀 중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1순위로 꼽힌다. 샌프란시스코는 박찬호가 지난 2년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호흡을 맞춘 브루스 보치 감독이 새롭게 지휘하는 팀.

좌투수 배리 지토를 영입, 1선발로 기용할 예정이나 맷 케인, 노아 라우리 등 2-3선발 요원의 무게가 지구 라이벌팀 LA 다저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비해 떨어진다. 박리 14년차로 113승(87패)을 올린 베테랑 박찬호가 선발 자리를 꿰찰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2년 재계약한 마크 멀더를 제외하고 전원 우완투수로 선발을 꾸린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도 박찬호가 이적할 만한 팀이다. 지난해 우승 주역 중 제프 수만, 제프 워버가 모두 팀을 떠난 세인트루이스는 크리스 카펜터만이 1선발을 지키고 있다. 2선발로 예상되는 킵 웰스가 통산 57승(74패)을 거뒀으나 5할 승률을 밑돌고 있으며 2-3선발인 앤서니 레예스, 애덤 웨인라이트 등 신예급 선수들은 노련미가 부족하다.

스토브리그에서 자유계약선수(FA)를 한 명도 영입하지 않아 자금이 넉넉한 피츠버그 파이리츠도 박찬호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단이다. 이 팀은 통산 18승(17패)을 올린 좌투수 자크 듀카가 1선발로 거론되는 실정이다. 다만 만년 하위팀인데 타선의 지원을 거의 못 받는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매싱 공격 받아봐

28일 오후 서울 올림픽 제2체육관에서 열린 2007 요넥스 코리아오픈 혼합복식 중국 가오링-정보와 덴마크 키릴라-토마스조의 결승전에서 중국의 정보가 스매싱 공격을 하고 있다. 중국이 2-0으로 승리, 우승했다. /연합뉴스

백화점 정품 4등 당침에 10억 갱신 주부 이야기

백화점 정품 4등 당침에 10억 갱신 주부 이야기

060-700-3658

히포크라테스의 벌집과 양귀비의 녹차가 만나

탈모방지, 양모 효과

모모네세라